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목양산업(1)

인종격리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아공이지만, 1994년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상적인 국제관계가 정립되고, 남아공은 메리노 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모 공급국으로서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토면적은 레소토나 스와질란드를 제외하여도 122만 km^2 가 되어 남북한 합친 면적 22만 km^2 의 약 5.5배가 되는 거대한 넓이다. 그 중 5/6를 농업용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대부분의 토지는 거의가 불모지의 건조지거나 산악지방이거나 돌밭이거나 하는 악조건 때문에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불과 10 %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용 토지는 거의가 거친 목축용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자연환경이 남아공을 중요한 목양국가로 만든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호주에 이어 세계 제2의 메리노 양모 공급국이 되었다.

남아공화국은 1652년 네덜란드인들이 케이프타운에 이주하면서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때 먼저 들어온 얀 반 리벡(Jan van Riebeeck)은 케이프타운 건설의 감독자였지만, 현지 토착민들이 토착양인 꼬리가 굵고 긴 미지(fat tail) 종을 사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케이프타운에서 식용 양의 사육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약 100년은 식용으로서의 양의 사육이 이어졌고, 이따금 유럽에서 옮겨져 온 양도 거의 모두 식용 양으로 사육되었었다.

메리노종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1789년으로 당시 케이프지구 주둔군 사령관인 고든(Robert. Jacob Gordon) 대령에 의하여 스페인 메리노가 사육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바 있다. 이 때 들어온 메리노는 숫양 두 마리에 암양 네 마리였다. 이것이 씨가 되어 증식에 노력하였으나, 그나마도 일부는 토착양의 개량에 사용되었고, 1796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고든 사령관이 전사하면서 본래의 여섯 마리는 그 부인에 의하여 도로

네덜란드로 돌려보내지고, 나머지가 호주로 건너가게 되었음은 이미 호주의 목양산업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역을 점령한 영국은 총독 섬머빌(Summerville) 경에 의하여 영국에서 다수의 스페인 메리노가 들어오게 되며, 이것이 초기의 남아공의 기초 양이 된 것이다. 영국인에 의하여 케이프타운에서 쫓겨난 네덜란드인들은 1834년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토 만들기에 나섰다. 이 사이에 곳곳에서 원주민과의 충돌이 있었고, 또한 혹독한 자연과의 싸움을 치르면서 나탈(Natal), 오렌지 자유주, 트랜스발(Transvaal)에 이르는 정착이 성공하면서 소위 그레이트 트랙(Great trek, 대 이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동시에 메리노 양 사육의 적지로서의 카루(Karoo)지구¹⁾의 개발에 의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목양산업은 급속히 진행되어 갔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타입의 메리노가 도입되어 사육되었다. 그 중에서 색스니(Saxony), 랑부예(Rambouillet), 버몬트(Vermont)계의 종은 어느 것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1900년대에 수입된 호주 메리노는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1926년에 호주가 메리노 양의 수출을 금지하게 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메리노 양을 수입하였다.

이 양들은 재래종과의 교배에 의한 개량과 호주계 메리노종의 자체 번식에 의하여 1930년경에는 이 고장의 메리노가 완전히 호주 메리노의 혈통을 받은 것이 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육 양수가 4백 40만 마리에 이르렀다.

그 후 한발에 의하여 1935년에는 3백만 마리까지 감소하였고, 그 후 2차 세계 대전 후인 1950년에는 3백 80만 마리까지 소폭 늘었다. 그리고 195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1961년에는 3백 80만 마리까지 늘어났고, 그 후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소의 변화를 겪으면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호주 등 다른 목양국가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2백 50만 마리로 줄었다.

1) Karroo 지구 : 고원지대의 쓸모없다고 보여지는 광활하고 평탄한 지역

[참고] 고대 아프리카 지도

이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고 불리는 것으로 1402년 조선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김사형(金士衡)이라는 관리가 입수하여 갖고 와서 보관하던 것인데, 1592-98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어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역대 종주의 장서로 보관되어 오다가 현재는 일본의 용곡대학(龍谷大學)에 보관되고 있는 대단한 유물이다. 당시 중국을 크게, 아프리카를 작고 길게 묘사한 내용이 재미있다. ♣ (공석봉)